



07년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

06년 12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07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여 전년대비 2.6% 증가할 것이며,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반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따라 내수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원화절상, 해외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도 소폭 증가에 그쳐 전년대비 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총괄

07년 국내 자동차생산은 전반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따라 내수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원화절상, 해외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도 소폭 증가에 그쳐 전년대비 4.7% 증가한 4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경기둔화, 고용불안정, 고유가로 인한 유지비 부담 등 전년의 부정적 요인들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지만 차량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과 신차효과 등이 기대되어 전년대비 4.3% 증가한 12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원고-엔저현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해외생산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이미지 상승, 판매망확충과 해외 선진업체의 판매망 활용확대, 신흥시장 시장다변화 진전등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280만대가 전망된다. 한편, 국내생산중 수출비중은 05년 69.9%, 06년 69.9%, 07년에는 70.0%로 예상된다.

수입차는 중저가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 출시,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입차가격 인하효과, 전시장 및 A/S센터 확충, 광고선전 강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라 전년 대비 36.4% 증가한 6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입차점 유율은 05년 2.6%, 06년 3.7%, 07년에는 4.8%가 될 것으로 보인다.

〈07년 자동차산업 전망〉

(단위: 천대, 십억불)

구 분	05년	06년(추정)	07년(전망)
생 산	3,699 (6.6)	3,820 (3.3)	4,000 (4.7)
내 수	1,143 (4.5)	1,150 (0.7)	1,200 (4.3)
수 출	2,586 (8.7)	2,670 (3.2)	2,800 (4.9)
[수출액]	38.0 (16.8)	43.3 (14.1)	48.5 (12.0)
수 입	31 (22.5)	44 (41.9)	60 (36.4)

※ () 내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은 신규등록, 수출은 통관기준 수출액은 부품 포함

2. 내수

07년 내수는 경기둔화, 고용불안정, 고유가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거나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120만대가 예상된다.

내수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상반기까지 완만한 조정을 거친 소비는 세계경제의 연착륙 기대,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 등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잠재된 대체 수요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경기둔화, 고유가로 인한 유지비 부담, 높은 청년실업률, 신차효과 약화, 7~8인승 RV의 자동차세 인상,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의무화에 따른 가격상승 등이 내수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07년 승용차는 4.5% 증가한 96만 2천대, 상용차는 3.8% 증가한 23만 8천대로 상대적으로 승용차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승용차는 7개 차종의 신차출시와 그동안 노후차량 누적으로 잠재된 대체수요가 구매로 이어져 전년대비 4.5% 증가한 96만 2천대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상용차의 경우, 뉴타운 건설, 혁신도시 사업추진 등으로 대형트럭 수요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나 트럭의 70%를 차지하는 1톤트럭과 버스의 경우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경기부진으로 본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전년대비 3.8% 증가한 23만 8천대가 예상된다.

승용차 중에는 소형, 중형, 대형, CDV의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차는 고유가로 경제적 잇점은 있으나 신차출시가 없으며, 단일차종의 한계, 그리고 08년부터 경차규격 확대로 07년 하반기에 대기수요 발생가능성으로 전년대비 10.4% 감소한 3만 5천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07년 자동차 차종별 국내판매 전망)

(단위: 천대)

구분	05년	06년(추정)	07년(전망)	증가율(%)	
				06/05	07/06
총계	1,143(100.0)	1,150(100.0)	1,200(100.0)	0.7	4.3
승용차	914(80.0)	921(80.1)	962(80.2)	0.8	4.5
상용차	229(20.0)	229(19.9)	238(19.8)	△0.1	3.8
- 버스	76(6.7)	73(6.4)	75(6.2)	△4.1	2.2
- 트럭	153(13.4)	156(13.5)	163(13.6)	1.9	4.6
[1톤트럭]	106(9.3)	108(9.4)	113(9.4)	1.7	4.9

※ () 내 수치는 비중%

3. 수출

07년 자동차수출은 4.9% 증가한 280만대로 예상되거나 원화절상 및 엔화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부문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07년 자동차수출 여건은 미국 및 서유럽의 경기둔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 정체와 원화가치의 상승추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공장 생산증가에 따른 수출대체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지역 등 개도국시장의 자동차수요 확대로 세계 자동차수요가 2.6% 증가가 예상되며, 국산차의 브랜드이미지 개선,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소비자만족도 상승 등으로 해외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GM과 로노-닛산의 해외판매망 활용 확대 등으로 국산차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07년 자동차수출액은 RV와 중대형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늘면서 전년대비 12.0% 증가한 485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국산차의 평균수출가격은 04년 10,107불에서 06년 11,200불로 높아졌으며, 07년에는 11,600불로 높아져 완성차 수출액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357억불이 예상된다. 07년 부품수출액은 KD 수출과 현지 생산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24.3% 증가한 128억불이 전망된다.

〈07년 자동차 수출 전망〉 (단위: 천대, 10억불)

구 분	05년	06년(추정)	07년(전망)	증가율(%)	
				06/05	07/06
수 출	2,586(100.0)	2,670(100.0)	2,800(100.0)	3.2	4.9
승용차	2,457(95.0)	2,550(95.5)	2,666(95.2)	3.8	4.5
상용차	130(5.0)	120(4.5)	134(4.8)	△7.3	11.9
- 버스	43(1.7)	32(1.2)	36(1.3)	△25.6	13.6
- 트럭	86(3.3)	88(3.3)	98(3.5)	1.9	11.2
수출금액	38.0(100.0)	43.3(100.0)	48.5(100.0)	14.11	12.0
- 완성차	29.5(77.7)	33.0(76.2)	35.7(73.6)	11.8	8.2
- 부품	8.5(22.3)	10.3(23.8)	12.8(26.4)	21.9	24.3

☞ ()내 수치는 비중%

〈07년 지역별 자동차 수출 전망〉 (단위: 천대)

구 분	05년	06년(추정)	07년(전망)	증가율(%)	
				06/05	07/06
총 계	2,586(100.0)	2,670(100.0)	2,800(100.0)	3.2	4.9
북 미	848(32.8)	860(32.2)	882(31.5)	1.3	2.6
-미국	709(27.4)	694(26.0)	700(25.0)	△2.1	0.8
E U	792(30.6)	757(28.4)	770(27.5)	△4.5	1.7
중 동	266(10.3)	272(10.2)	288(10.3)	2.5	5.9
동유럽	158(6.1)	211(7.9)	232(8.3)	33.2	10.2
중남미	159(6.2)	207(7.8)	227(8.1)	30.1	9.6
아프리카	111(4.3)	147(5.5)	168(6.0)	32.8	14.4
태평양	99(3.8)	109(4.1)	120(4.3)	10.5	10.0
아시아	125(4.8)	83(3.1)	90(3.2)	△34.0	8.3

☞ ()내 수치는 비중%

지역별로, 07년 대북미 수출은 기아, 지엠대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현대 미국 앨라바마 공장 현지생산 확대, 미국경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정체, 일본 업체의 소형차부문 강화등에 따라 전년대비 2.6% 증가한 88만 2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U 수출은 지엠대우의 GM 브랜드 활용, 쌍용의 판매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동유럽 현지생산 개시와 유로화 약세로 국산차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77만대(수출비중 27.5%)로 수출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동 수출은 5.9% 증가한 28만 8천대, 중남미는 9.6% 증가한 22만 7천대, 그리고 동유럽은 10.2% 증가한 23만 2천대가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각각 8.3%, 10.0% 증가한 9만대와 12만대가 예상된다.

4. KD(녹다운 방식) 수출

07년 KD수출은 중국, 우즈베크, 러시아, 베네주엘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증가세가 이어져 전년비 20.4% 증가한 130만대가 예상된다. 07년에는 최대 KD수출대상국인 중국은 내수 호조로 9%대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KD 물량은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우즈베크, 러시아, 베네주엘라,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06년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 KD수출은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 1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07년 KD 수출액은 06년(38억불)보다 8억불 증가한 46억불로 21.1% 증가할 전망이다.

5. 해외 생산

07년 해외생산은 중국, 인도, 미국, 터키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한 125만대가 예상된다. 기존의 중국, 인도, 미국, 터키 공장과 기아의 슬로바키아 공장이 본격 가동됨으로써 전년비 25.0% 증가한 125만대로 최대 해외생산대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07년 자동차 차종별 국내판매 전망〉 (단위: 천대)

구 분	05년	06년(추정)	07년(전망)	증가율(%)	
				06/05	07/06
해외생산	664	1,000	1,250	50.6	25.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06.12월〉